

바나바와 사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세요!



나레이션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한 뒤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욱 괴롭히며 핍박했습니다.

유대인 예수쟁이들은 모두 잡아들여~

군인 따라와! 어서 가라니까! 어서 가!!



나레이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같은 아주 먼 곳까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망갔던 다른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람 1 저기.. 자네 혹시 나사렛 예수라고 들어봤나?

사람 2 뭐? 예수?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떤 사람이야?



사람 1 하이고.. 이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나~ 그분은 말이지.. 그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

나레이션 이렇게 복음은 계속 전해졌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람 2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람 1 오 형제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군요~ 정말 잘 되었어요~ 축하해요~



나레이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갔어요. 특히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예루살렘교회 바나바 형제여!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을 잘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 주십시오.

바나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나레이션 바나바는 그렇게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에게 성경과 예수님을 잘 알려주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였습니다.

바나바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레이션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갔습니다.

바나바 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뿐입니다.



나레이션 믿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바나바는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나바 다소에 가서 사울에게 안디옥교회를 함께 섬기자고 해야겠어. 이런 일을 사울처럼 잘 할 사람이 없지.



나레이션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 다소로 향했습니다.

바나바 하나님! 사울이 우리와 꼭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레이션 여기서 바나바가 만나려고 하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거듭난 바로 그 사울이에요. 다소에 도착한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안디옥교회를 함께 섬기자고 부탁했어요.

바나바 사울 선생님~ 함께 안디옥으로 갑시다. 안디옥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나레이션 바나바의 요청을 들은 사울은 흔쾌히 승낙해서 함께 안디옥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울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레이션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아주 착하고 바르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 1 아니, 저 사람들은 뭔데 저리도 얼굴이 밝고, 늘 기쁜 거지?

사람 2 자네 요즘 소문 못 들었나? 사람들이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더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나 뭐라나?

사람 3 그리스도?? 아~ 앞으로도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되겠네.

나레이션 이때부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날로 날로 든든히 서갔습니다.